



의학적으로 디자인한 사이보그의 내부 조직도.

사이보그는 '미래'가 아닌 '현재'다

오늘날의 세계관 대변하는 메타포 '사이보그'

김보영 | 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다이어트와 피어싱 등 요즘 벌어지는 현상을 통해 몸을 바라볼 때 그것은 수시로 변형가능한 것이다. 몸은 '천부'의 것이고 불변하는 고유의 실체라는 인식은 과거 말이 돼버렸다. 자연과 인공의 경계가 흐려진 이런 현상을 극단적으로 은유하는 것이 바로 '사이보그'다. 실제로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사이보그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재료로 존재한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자연적이고 태생적인 상태로 지니고 살아야 할 무엇이 아니라고 해도 의문을 가질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몸은 끊임없이 변화할 뿐 아니라 변형된다. 변형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고대 인도에서와 같은 형벌로서의 변형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재기발랄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몸이다.

재기발랄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들어 부쩍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용성형수술의 범람과 그 부작용 및 피해 사례, 다이어트로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 이중적 자아정체성으로 괴로워하다가 성전환 수술로 안정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들의 사례를 볼 때, 몸의 변형이란 너무도 무겁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피어싱을 즐기는 우리 동네 소녀와 팔뚝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고 아내와 신경을 연결한 영국의 케빈 워윅 교수가 재기발랄하다고(그들이 진지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느낀다.

자연과 인공의 경계 허물어져

인간의 몸이 이렇듯 수시로 변형가능한 것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자연과 인공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공이라고 말하면 다소 거부반응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신이 졌든, 원래 있던 것이든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것과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만든 것, 이들간의 경계가 흐려진다. 물론 성형과 같은 변형이 근대 이후의 산물인 것도 아니며, 앞서 말했듯 고대 인도에서는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매우 의지적인 변형을 형벌의 방법으로 택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의 변형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그 인공의 절정은 '기계'다. 기계가 인공의 절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변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바로 기계적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뉴턴에 의해 완성됐다고들 말하는 과학혁명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은 바로 시계의 톱니바퀴를 이해하고, 그 작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의 작동 원리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 혹은 자만심이다.

이 때문에 자연적인 몸과 인공적인 기계의 만남을 한 단어로 보여주는 '사이보그' (cybernetics +organism)는 오늘 우리의 몸이 처한 상황과 우리의 세계관까지도 표현해줄 수 있는 메타포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사이보그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재료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기계의 개념 또한 매우 모호해져서, 이제는 전자적인 기계, 생화학적인 기계 등 예전 같으면 기계의 범주에 넣지 않았을 범한 것들까지 기계로 간주하게 됐다.

의료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기계인간

몸과 기계의 결합을 가장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온 학문분야 가운데 하나가 의학이다. 의료기술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계적인 의족, 의수를 어떻게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인공심장과 같은 기계를 몸에 집어넣는 일을 지속적으로 시도, 발전시켜왔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의료기술은 전자공학의 힘을 빌곤 한다. 예컨대 인공귀를 만드는 데는 전기전자공학적인 음성신호처리기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조직공학 기법도 중요하게 떠오른다. 이것은 세포배양기나 신체 내에서 특정 조직이나 장기를 인위적으로 생성시켜 인체 내에 이식시키는 방법으로, 특히 체세포 복제의 가능성이 알려진 최근에 와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부모님이 물려준 혹은 신이 선사한 '주어진 몸'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나의 의지와 노력 혹은 타자의 의지와 노력이 개입된 혹은 언제든지 개입될 수 있는 몸 안에 산다. 그리고 지금은 기계 또한 공장의 기계 혹은 시계의 톱니바퀴 이상의 다른 무엇을 의미하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몸과 확장된 기계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시대다. 혹은 적어도 곧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사이보그는 미래가 아닌 현재다.●